

교회: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 청장년부 공과

## 제 15 권



# <청장년부 공과 제 15 권>

주제: 성경 속 인물 탐구(Personality Profile)

공과	제목
제183공과	아브라함
제184공과	롯의 아내
제185공과	이삭
제186공과	에서
제187공과	침례요한
제188공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189공과	베드로
제190공과	바울
제191공과	요나
제192공과	엘리사
제193공과	모세의 어머니
제194공과	솔로몬
제195공과	공과 복습

## 들어가면서

사전에서 프로필(profile)의 뜻 중 하나는 “인물의 가장 뛰어난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생생한 전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인물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위험한 일을 겪은 인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습니까?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지낸 요나 이야기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산 인물도 있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어떤 선지자들보다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세상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돔을 떠나며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 롯의 아내를 살펴보면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권에서는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12명의 성경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영웅”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통해 성경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공과는 지금까지 배운 공과들을 복습하면서 성경 속 인물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요약해 볼 것입니다.

## 제183공과 아브라함

성경본문: 창세기 12:1-4, 15:1-6, 21:1-5

보조성경: 로마서 4:3, 17-21

요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8)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행위에 이르렀다. 이 신실성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한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은 이러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 12:3). 그의 믿음과 순종 및 의로 인하여 그의 아들 이삭의 신비한 출생을 포함하는 많은 약속들이 위로부터 주어졌다. 열국 족속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에게 하신대로 이삭의 계보를 좇아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 주셨다. 이는 그가 그 메시아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1. 창세기 12:1-3절 말씀 가운데서 아브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2. 아브람으로서는 그의 아비 집과 친척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더 쉬운 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만들었던 요인들 중 몇 가지를 적어 보라.

3. 하나님께 대한 아브람의 순종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먼 후대의 후손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끼쳤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경우 다른 이들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

4.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에 아브람은 순종하였다(창 15:9-11). 그 제사의 과정에서 아브람이 술개들을 쫓은 행위의 중요성을 말해 보라. 또 이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하시는 바 헌신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때 취하게 되는 우리의 행위와 비교하여 그 공통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라.

5. 창세기 15:17절에 보면, 아브람은 그의 제사가 열납 되었다는 한 가지 증거(그의 제물에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임하였음)를 받았다. 곧 그는 그가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되리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오늘의 우리도 우리의 예배나 헌신이 하나님께 열납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가운데는 한 아들이 기적적으로 태어나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당시의 상황 곧 그의 아내 사라와 그 자신의 나이 많음을 고려해볼 때, 도저히 그 약속을 인간적으로는 믿기가 어려울 터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로마서 4:20,21).

7. 창세기 17: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게 한 아들이 분명 태어나리라” 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아들과 관련한 한 가지 명령을 주셨다. 그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의 성경본문 가운데서 그가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구절을 찾아보라.

8.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를 적어보라. 오늘 요절에 나오는 그 약속 가운데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 제184공과 롯의 아내

성경본문: 창세기 19:15-28

보조성경: 누가복음 17:28-32

요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7)

이생에 있는 것들은 일견 사람들의 영혼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롯의 처의 경우에서처럼 도리어 돌이킬 수 없는 과멸로 이끄는 무서운 함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시기적절하게 경고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신 경우들이 자주 눈에 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그들처럼 회개치 않는다면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했던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경고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를 명심하라!

1.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창세기 18:20)

2.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와 오늘의 우리들의 도시들과 비교하여 그 공통점을 찾아보라.

3.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려고 취했던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적어보라(창세기 18:23-32).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들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본이 되고 있는가?

4.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쓰셨나?

5. 롯과 그의 처가 왜 소돔 성을 떠나는 일에 우물쭈물 하였는가?

6. 천사는 성 밖으로 나온 롯 일행에게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소돔을 떠난 지 얼마 있다가 불과 유황이 떨어졌는가?(누가복음 17:29)

7. 롯의 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후 다시 세상을 되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과의 사이에 공통점들은 무엇인가?

8. 누가복음 17: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주님께서는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 제185공과 이 삭

성경본문: 창세기 22:6-14, 24:1-8, 62-67, 26:1-5, 17-33

요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27)

이삭은 그 아비 아브라함의 나이 일백세, 그 어미 사라의 나이 90세에 나온 외아들이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창세기 25:5).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창26:13). 그는 화평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1. 창세기 21:12절과 신약성경 로마서 9:7절과 히브리서 11:18절에서 보여지고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계획에서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말해 보라.

2. 아래 부분 가운데서 이삭과 예수님의 생애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찾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림(창세기 22장) -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함(창세기 24장) -

3.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이 돌아와 보니 이삭은 어떠한 태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나? 이 태도가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을 말해 보라.

4. 이삭은 그 종에게서 리브가를 만난 자초지종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였나? 그가 리브가에게 취한 행동을 말해 보라.

5. 이삭의 기도생활을 아래에 적어보고 또한 그의 기도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말해 보라(창세기 25:21, 26:24,25).

6. 어느 주석가는 “아브라함이 그 지방에 오래 기거함으로 그 지방 여러 곳에 그가 판 우물들을 그 흔적으로 많이 남겼다” 라고 주석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한 흔적들을 서둘러서 메우고 지워버렸다. 그러나 이삭은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하고 메운 우물들을 다시 뚫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은 무엇인가?

7.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하며 대들었다. 이같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삭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는가? 그리고 그 자세는 어떠한 모본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왜 칭찬할만한 것인가?

8.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가 무슨 이적을 행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용기 있는 공적을 살았다든가 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는가?

9. 주님께서는 이삭의 순종함과 온전함에 대하여 어떠한 상급을 주셨는가?  
(창세기 26:3,12,24절)

## 제186공과 에 서

성경본문: 창세기 25:27-34 ; 히브리서 12:14-17

보조성경: 창세기 27:30-40

요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 5:25)

우리는 앞장에서 이삭의 복종, 묵상, 애정, 화평, 기도생활을 살펴보았다. 이런 특성들은 오늘의 우리 역시 각자가 개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에서의 경우들을 보면, 우리는 이삭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데 반면 그 삶의 결과는 이삭의 그것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1. 창세기 25:30절에 보면 에서의 다른 이름으로 “붉음”이란 뜻의 “에돔”이 나오고 있다. 그 이름은 에서가 붉은 팔죽을 먹고 싶어 그의 장자권을 판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과 오늘의 성경본문에 나오는 다른 암시들을 사용하여 에서의 인격적 특성에 대해 설명해 보라.

2.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을 때, 그들은 에돔 지경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가?(민수기 20:14-21). 또 이를 그들의 조상인 에서와 연관시켜 볼 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3. 갈라디아서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영적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런 좋은 것들이 후사가 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영영한 지옥 심판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에서의 세상적인 장자권과 우리의 영적 장자권을 서로 비교하여 보라.

4. 에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장자권의 가치 잘 알지를 못하여 사소한 것과 바꿔치기 하고 말았다. 오늘의 우리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세상

의 어떤 것과 바꿔치기할 위험이 있다.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과 바꿀만한 것들이 세상에 있을까?

5. 우리의 영적 장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들어 보라.

6.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판 일로 인하여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는가?(히브리서 12:17)

7. 오늘 에서의 삶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제187공과 침례 요한

성경본문: 누가복음 3:1-18

요절: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1,2)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외침으로 그리스도 앞에 길을 예비하였다. 역사상 이와 같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 선지자나 설교자는 침례 요한 말고는 달리 없었다. 그의 사명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1. 요한은 당시에 평평거리던 고위 성직자 계급에는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요한은 누구에게 어떤 상태에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가?

2.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에게 와서 보고 그 전하는 메시지를 듣도록 이끌었는가?

3. 고대에는 왕이 어디를 행차할 때는 사자를 미리 그 거주민들에게 보내어 왕이 지나가실 길을 치우고 왕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풍습이었다. 길이 험하거나 거친 지역에서는 국도가 없었으므로 이런 사전 준비는 더욱 필요하였다. 오늘의 성경본문 누가복음 3:4절은 바로 이런 점을 말하고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가?

4.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5. 요한의 설교내용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다. 이 심판을 그는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6. 선지자 이사야는 침례 요한의 인격에 관하여 어떻게 묘사하였나? 그리고 요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암시를 주었는가? (이사야 40:3)

7. 요한은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한번도 가감하거나 하는 식으로 타협하지 않았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라(마태복음 14:3-10).

8. 요한은 어떤 말로써 자신의 무가치함을 나타냈는가?(누가복음 3:16)

9.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셨나?(마태복음 11:9-11)

10.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사명을 주실 때 우리를 어떤 자리에다 놓으시는가? 아래 성구를 찾아 적어보라.

에베소서 4:11절 :

에베소서 4:12절 :

## 제188공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본문: 마가복음 16:1-14 ; 요한복음 20:19-29

요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29)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1:25)고 말씀하셨다. 온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모아지고 있다. 갈보리는 그리스도의 인자되심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의 부활은 그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부활의 진리를 믿으면 영적 부활에 이르게 된다. 물론 먼 훗날의 육체적 부활도 포함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은 그가 인자(사람의 아들)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의 능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준다.

1. “믿는다” 는 말의 뜻을 적어보고 그 말이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보라.

2.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는 그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20:19-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3.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기는 하여도 아직 직접 보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 몇 가지를 적어 보라. 이러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하여 믿는 신앙과 비교하여 보라.

4.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사람 이상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부활은 왜 성도에게 그다지도 중요한가?(요한계시록 1:18 ; 고린도전서 15:20-23)

5. 성도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되리라는 보장은 무엇인가?(로마서 8:11)
6.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한가?(고린도전서 15:6)
7.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안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8. 물 침례는 어떤 면에서 부활을 상징하는가?(로마서 6:3-5)

## 제189공과 베드로

성경본문: 마태복음 26:30-35, 69-75; 사도행전 2:14-24, 41

보조성경: 요한복음 21:15-17, 베드로전서 1:3-9

요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15)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생업을 버렸었다. 그는 예수님이 오천 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것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물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보기도 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는 메시아로부터 직접 사랑과 용서와 용기와 충성과 믿음과 순종을 배웠었다. 오늘 이 공과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베드로의 실패를 그가 오순절 성령체험 후에 주님께 삼천 명의 영혼을 구원해 낸 성공과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들을 분석하여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더욱 우리 주님을 성공적으로 잘 섬길 수 있었으면 한다.

1.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6:30-35절에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결심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2. 베드로는 그의 때 이른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험이 왔을 때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 나사렛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는 힐문을 세 번 당하였을 때 베드로의 태도는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가?

3. 마태복음 26:40,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실패의 원인 한 가지가 나와 있다. 그 이유를 적어보라.

4. 우리는 꼭 실패를 해야만 우리의 연약성을 알 수가 있는가?

5. 베드로는 왜 그렇게도 닭 우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는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또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6. 마태복음 26:75절을 요한복음 21:15-17절과 비교하여 보라.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7.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2:14,41절에 보면, 전날에 주님을 부인 하였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베드로가 나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처럼 많은 무리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사도행전 1:8)

8. 성경을 보면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함과 약함의 양면성을 다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왜 이같이 그들의 양면성을 모두 다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는가?(디모데후서 3:16 ; 베드로후서 3:17,18)

9.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아래에다 적어보라.

## 제190공과 바울

성경본문: 고린도후서 4:8-18, 11:24-28 ; 디모데후서 4:6-8

요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7,8)

바울 사도는 그의 일생에 두 가지 일에 전력투구하였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의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가지 일에 성공하였다. 이는 그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교훈대로 온전히 따랐던 때문이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만 한다면 많은 영혼을 얻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1.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괴로움과 시련을 당했으며서도 그것들을 “가벼운 것들”로 보았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몇 가지 적어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과 우리의 장래의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

2.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3. 고린도후서 4:8,9절에 보면 대조되는 것들의 항목이 많이 나온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 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보라.

4.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라.

5. 고린도후서 4:8-18절에 나오는 고난의 항목들이 말해 주듯이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그 신실성은 참으로 놀랍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뜻을 설명해 보라.

6. 바울은 그의 성도로서의 삶을 선한 사움에다 비유했다. 그 뜻을 설명해 보라.

7. 의의 면류관은 이러한 바울과 또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8. 야고보서 1:12절에 보면, 또 다른 면류관 곧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어떻게 이를 행하였는가?

## 제191공과 요 나

성경본문: 요나 1장-3장

보조성경: 마태복음 12:39-41

요절: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 3:1-3)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 같은 선지자가 왜 그의 사명을 핑개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자 하였을까? 우리는 오늘의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은 범사에 어느 때이든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1.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2.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자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3.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으면서도 배 밑창으로 내려가 세상 모르게 잠을 자면서 한창 기승을 부리던 바다의 폭풍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 또 이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아랑곳없이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과 방불한가?

4. 오늘의 성경본문 중 어느 구절이 요나의 태도의 전환점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가? 그 구절을 통해 요나의 태도를 설명해 보라.

5.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을 때 요나가 자신의 영적상태에 대하여 느낀

감정을 설명해 보라. 그리고 그 같은 비참한 상태에서 그가 취했던 태도는 어떤 것이었나?

6.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7. 요나가 니느웨에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8.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러한 요나서의 기록을 사실로 믿으려고 않는다. 요나서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신약성경 구절을 찾아보라.

9. 당신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해 본 적이 없는가? 그로 인한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가?

## 제192공과 엘리사

성경본문: 열왕기하 2:1-15

보조성경: 열왕기하 4:1-7, 18-37, 6:1-7

요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겹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열왕기하 2:14)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주셨다. 엘리야가 찾았을 때 마침 엘리사는 열두 겨리의 소들을 앞세우고 밭을 경작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의 권위의 상징인 겹옷을 엘리사에게 벗어 던졌다. 이로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사명을 이루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데려 감을 받았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겹옷을 받고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에서 일하였다.

1.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의 겹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어떠한 귀감이 될 만한 태도를 보였는가?(열왕기상 19:19-21).

2. 상기한 열왕기상 19:19-21절 이후로는 여러 해 동안 엘리사에 관한 기록이 성경 상에 나오지 않는다. 그동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간 것인가?(왕상 19:21, 왕하 3:11).

3.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서 하늘로 들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엘리사와 엘리야를 따르던 그 선지생도들의 태도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라.

4. 오늘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찍이서 좇게 될 때 그 위험성의 몇 가지를 적어 보라.

5. 우리는 엘리사가 몇 번의 낙심할만한 일들에 직면하는 것을 본다. 그 중 몇 가지는 엘리야로부터 왔다. 이는 엘리야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

의 능력을 갑절이나 자기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구한 것과 연관이 있다. 그 것들이 무엇이며, 엘리사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나?

6.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것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강림과는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가? (행2:4)

7.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후 그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 중 몇 가지를 적어 보라.

8. 열왕기하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적 네 가지를 포함해서 엘리사가 행한 여러 이적들은 엘리사의 어떤 좋은 신앙인격을 보여주는가?

9.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 인격과 삶의 스타일(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중 몇 가지를 열거해 보라.

10. 열왕기하 13:20,21절에 보면 엘리사의 능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기사가 나온다.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어떻게 높이시고 계시는가?

## 제193공과 모세의 어머니

성경본문: 출애굽기 1:22, 2:1-10 ; 히브리서 11:23

보조성경: 출애굽기 6:20, 히브리서 11:24-26

요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12)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는가?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참으로 현숙한 어머니였다. 그녀가 그 아들 모세에게 심어 준 하나님의 교훈들은 너무도 철두철미한 것이어서 그 이후로 모세가 이방 애굽에서 성장하여 여러 학식을 쌓았음에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실로 모세가 나이 40세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배우고 익힌 학식은 당시 세계에서는 최상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어릴 적의 신앙교육은 퇴색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빛을 발할 만큼 그 영향이 탁월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요게벳의 위대한 점은 그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는데 성공하였다는 사실이다.

1. 남자가 나거든... 그를 하수에 던지고...” (출 1:22)라는 애굽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애굽강은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비탄과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요게벳은 어떠한 현숙한 행동을 보였는가?

2. 모세의 부모는 왜 애굽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는가? 만일 당신이었다면 그 같은 상황아래서 어떻게 행하였겠는가?

3.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면 그 아기가 안전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4. 모세의 어머니가 가르친 교훈들은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히브리서 11:23-26)

5. 어머니 요게벳과 그 아들 모세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훌륭한 점은 신앙의 덕이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일생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묘사해 보라. 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그러한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일생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6. 당신은 요게벳이나 모세처럼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의탁했다가 응답을 받은 사람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을 아래에 적어보라.

7.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가?(고린도후서 3:5)

8. 사람은 무엇 무엇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가?

## 제194공과 솔로몬

성경본문: 열왕기상 3:5-14, 4:29-34

보조성경: 열왕기상 3:16-28

요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 (욥기 28:28)

다윗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했다. 그런 후 그는 부친으로서 아들에게 주는 유언 비슷하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했다 (대상 28:9). 그전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구하면서(대상 22:12), 그가 주의 성전을 짓도록 조언하고 훈계하였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바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의 지혜를 구하라고 격려하고 있음을 본다.

1. 열왕기상 3:3절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왕상 3:5)고 하신 근본 이유가 나타나 있다. 그게 무엇인지 적어보라. 그리고 이 솔로몬의 속성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왜 중요한 것인가?

2. 하나님의 물으심을 받고서 대답한 솔로몬의 말들을 면밀하게 생각해보고 거기서 오늘의 우리가 얻는 영적 특징들을 적어보라(열왕기상 3:6-9).

3.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의 목록을 적어보라.

4. 신약성경 야고보서 4:3절을 읽어 보신 후에 만약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 대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우선하여 구하였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어떠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가?

5.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응답이 되었다는 어떤 증거를 하나를 대보라

(열왕기상 3:16-28).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는 다만 재판을 바로 하는 일에만 국한되는 그런 지혜였는가?

6. 스바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7.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할 때는 선악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신령한 지혜는 그 이상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야고보서 3:17절을 읽어본 후 그 특성 몇을 아래에 적어보라.

8. 이러한 경건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야고보서 1:5,6, 22-25).

9. 경건한 지혜는 성도의 성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베소서 3:17-19, 4:13).

## 제195공과 공과 복습

성경본문: 히브리서 11:8-27

요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불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37:37)

지금까지 우리는 12공과들을 통해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 배웠다. 그 중에는 믿음의 영웅들도 있으나 그 반대의 인물들도 있었다. 그러나 저마다 우리에게서 귀한 교훈을 준다. 오늘 공과에서는 이들 인물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면서 그들의 강함과 약함을 살펴보고 그 교훈들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하자.

1. 아브라함의 삶은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른 자의 하나의 탁월한 실례이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는 뛰어난 점들 몇을 적어보라.

2.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휩쓸리지 않도록(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생의 일들에 우리의 삶이 휩싸이게 될 위험을 말해 보라. 룯의 처를 기억해 보기 바란다.

3. 창세기 25:27-34절에 보면 이생의 일시적인 것을 바라고 자신의 더 중요한 장자권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버림을 당하고 만 어처구니없는 비극적인 인물의 실례가 있다. 우리 거듭난 신자들이 영적 장자권을 이생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아래에 적어 보라.

4. 침례 요한의 세상을 향한 사명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사명과 어떻게 비슷한가? 또 이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한복음 1:29-31).

5.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이전에 주를 부인하던 때의 그 모습과는 전혀 판이하다. 이러한 변화를 몰고 온 일련의 사건들을 추적하여 보라.

6. 성경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자들이 장차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고 말한다. 주님을 신실히 섬기려하면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고대하여야 하는가?

7.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어떤 확신을 갖고 그렇게 행하였던가? 그녀의 태도와 행위가 오늘의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이유와 측면을 설명하여 보라. 디모데후서 1:12절을 참고하라.

8. 솔로몬이 오늘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면을 적어보라. 오늘의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

9. 지금까지 배워 온 성경상의 인물들은 저마다 선악 간에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저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졌다. 어떤 이는 칭찬으로, 어떤 이는 부끄러움으로! 오늘의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